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8>

무엇이 가장 견고한 것인가?

조주 스님이 법당에서 설법했다. “형제들이여, 설법을 들으려고 오랫동안 서 있을 필요 없다. 일이 있으면 상량(商量·헤아림)하겠지만, 일이 없으면 선당에서 좌선하면서 법을 공리하는 것이 좋다. 노승이 행각시절에는 하루 두 끼 식사를 위한 자질구레한 용품을 제외하고는 따로 용심처가 없었다. 만일 이와 같지 않다면 출가하는 거리가 멀다.”

師上堂 兄弟莫久立 有事商量 無事向依鉢 下座窮理好 老僧行脚時 除二時齋粥 是難用心力處 餘外更無別用心處 若不如此 出家大遠在

수행자도 일이 있을 때는 생각을 굴려야 할 때가 있다. 수행승도 사람이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이 없을 수 없다. 이 때 생각의 굴림은 일을 위한 것으로 부득이한 경우이다. 또한 밥을 먹기 위해 자질구레한 마음을 쓰는 것도 부득이하다. 그 외에는 수행자라면 조용히 좌선하면서 화두를 공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공연히 하루 종일 잡생각으로 가득하다면 어찌 수행자라 하겠는가.

무심히 살아가는 수행은 출가자나 재가자의 기본 수행이라는 조주 스님의 설법에 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어떤 것을 보고 당해도 무심으로 넘어가는 수행은 노년이 돼도 계속 되어 한다.

한 스님이 물었다. “심지법문(心地法門)이란 무엇 입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고금(古)의 기준이야.”

問 如何是心地法門 師云 古今榜樣

심지법문이란 마음에 대한 법문이다. 조주 스님은 이것에 대한 답변으로 “고금의 기준이 된다”고 짧막하게 대답했다.

세상사 복잡하고 많지만, 모든 것은 결국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인간사에서 마음을 빼놓고 도대체 무엇이 더 의미가 있단 말인가. 종국에는 돈도 명예도 별 의미가 없다. 오로지 이 마음 하나만 편안하다면 그 무엇이 부럽지 않다.

얼마 전에 지인이 위암으로 운명을 달리했다. 52세의 여자였다. 문상객 틈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평소 고인을 잘 아는 사람이 하는 말이 들려왔다. “고인이 그동안 먹지도, 쓰지도 않으며 모야 이제 겨우 시내에 상가 하나를 장만했고, 가게 세를 받기만 해도 퇴직된 남편과 노년을 그러저럭 살아갈 만한 위치에 왔는데, 그만 죽었다”는 것이다. 또, “남편이 평소 구두쇠에 벼락이 있고 잔소리도 많고 애정 표현도 없어 고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

다”는 말도 들었다. 이후 남편이 찾아와 49재 경비를 결정했다. 남편은 최하위 금액으로 고인의 49재를 지내기로 했다. 고인의 막역한 친구가 와서 울먹이면서 말하길 “비록 화장이라 하지만 수의도 가장 저렴한 것을 선택하더니 고인을 위한 천도재 경비도 그렇게 싸게 했다”면서 못내 서운해 했다. 이에 남편은 “살아있을 때 여행가고, 잘 먹고 편안하게 살 것이지, 뭐 하러 그렇게 힘들게 살아?”라면서 영정 앞에서 울었다.

사람은 살아있을 때가 중요하다. 시간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 49재 경비는 최하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바쁘고 힘들어도 적재적소에 마음을 위로하는 말 한 마디쯤은 하고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평소 “여보 사랑해” “힘들지? 오늘 맛있는 것 사 줄 테니 나와요” “작지만 내 마음이 담긴 선물이야” 라는 식의 애정이 담긴 말을 했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큰 행복이 담긴 선물이었을 텐데 사람들은 그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무심은 출가자나 재가자의 기본 수행

마음은 비어있기에 무너질 것이 없다

화두에 몸·마음 바치면 반드시 뜻 캐내

한 스님이 물었다. “만물 중에 무엇이 가장 견고합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쳐다보고 육을 한다면 내가 입이 닳도록 마구 퍼부어도 좋고, 쳐다보고 짐을 뺐는다면 내가 차라리 침보다 더한 잔물을 퍼부어도 좋아.”

問 萬物中下物最堅 師云 相罵饒汝接嘴 相唾饒汝潑水

무엇이 가장 견고한 것인가? 조주 스님은 ‘마음’ 만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마음은 본래 비어서 형체가 없다. 따라서 어떤 상처도 받지 않는다. 마음은 본래 아무런 심한 모욕을 받아도 무심한 것이고, 얼굴에 짐을 뺐고 잔물을 끼었어도 아무렇지도 않다. 이것이 마음의 본질이다.

모욕을 당했다고 느끼는 것은 사람이 허상을 잡는 것이다. 스스로 마음이 다쳤다는 생각을 일으켜 세우면 가상의 마음이라는 실체가 만들어져 상처를 받는다. 결국 자기의 한 생각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또 있

겠는가. 잘 생각해보라. 마음이 원래 형체가 있는 것인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즉시 깨달아야 한다.

마음은 본래부터 비어있다. 비어있기 때문에 무너질 것이 없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희한하게도 일체 고뇌는 사라진다.

한 스님이 물었다. “새벽이나 밤이나 쉬지 않는 경우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승려 중에 두 번 세금을 바치는 백성 같은 사람은 없다.”

問 曉夜不停時如何 師云 僧中無與麼兩稅百姓

재가자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피와 같은 세금까지 바치면서 살아간다. 반면에 승려는 대궐 같은 사원에 살면서 일하지 않아도 밥 주고 옷도 주고 재워준다. 게다가 승려는 세금마저 감면 받는다.

때문에 승려가 아무리 밤낮으로 열심히 수행한다고 해도 1년에 두 번 세금을 바치는 백성보다는 못하다는 것이다.

누구든지 처음 출가해 스님이 되면 열심히 수도해 도를 이루려고 노력할 것이다.

수행은 정해진 시간을 지키고 입선시간에 앉아 있다고 해서 국은(國恩)과 시은(施恩)을 다 갖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은혜 갖는 일은 오로지 화두를 타파해 깨달음을 얻고 일체 중생에게 불법을 제대로 전달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 외에는 없다.

깨달음을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요원하지도 않다. 다만 일구월심 불퇴전(日久月深不退轉)의 신심으로 화두 하나에 몸과 마음을 송두리째 바친다면 반드시 그 뜻을 쉰 날이 오게 돼 있다.

수행자의 길은 끝날 위를 걷는 길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잘못하면 도를 이루는 것은 고사하고 평생 갇지 못할 시은만 가득 짊어진 채 비참한 미래 과보만 부르게 된다.

출가를 했으면 도를 이루는 그날까지 쉬지 말고 탐구·정진해야 한다.

수행자가 이 절 절 떠돌아다니면서 부와 명예를 탐닉하는 마음에서 헤어나지 못하거나, 무사안일하게 지내면서 뱃속에 기름진 공양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세월만 허비한다면 머지않아 저승사자를 만날 때 혹독하게 그 대가를 치루고 말 것이다.

■ 무불선원 선원장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관심론 13

나의 마음자리에 절을 하라

#불상을 조성하는 법

또한 부처님의 모습을 조성하는 것은 중생들이 불도를 구할 때, 말하자면 각행(覺行 : 스스로 깨닫고 다른 이를 깨닫게 하는 보살의 불도 수행을 닦을 때에 여래의 참되고 묘한 모습을 허상으로 반영한 것이지 어찌 법을 금동(金銅)으로 주조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해탈을 바라는 자는 몸으로 불가마를 삼고, 법으로 불을 삼고, 지혜로 공장(工匠)을 삼고, 삼취정계와 육바라밀로 모양을 삼아 몸 가운데 있는 진여불성(眞如佛性)을 녹여서 계율의 틀에 넣어 하나도 빠뜨림 없이 가르침대로 행하면 절로 진용(眞容)의 모습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는 허물어지는 유위법이 아니라 영원히 상주하는 절대진리의 미묘법신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도를 구하면서도 이러한 참된 진용(眞容)을 조성하고 그리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무엇으로 공덕을 이룬다 하겠는가.

[원문]

又鑄寫形像者 卽一切衆生 求佛道也 所謂修諸覺行 假像如來眞容妙相 豈道鑄金銅之所作也 是故求解脫者 以身爲爐 以法爲火 以智慧爲工匠 三聚淨戒 六波羅密 以爲模樣 鎔鍊身中眞如佛性 遍入一切戒律 摸中 如敬奉行 一無缺漏 自然成就眞容之相 所謂 究竟常住 微妙法身 非是有爲敗壞之法 若人求道 不解鑄寫眞容 憑何輒言功德也.

[해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행하는 것에는 반드시 인과가 따르게 됩니다. 불상을 조성하고 탕화를 조성하는 것은 분명 복이 됩니다. 보시를 행하는데 대상을 두고 행한다면 언젠가는 내가 행한 만큼 받습니다. 우리가 부처님하면 역사적으로 출현했던 석가모니 부처님 또는 과거 현재 미래의 3000불을 생각할 수 있지만 부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부처님이 아닙니다.

경에서 말씀하시길, “나무로 만든 불상은 불을 지나지 못하고, 흙으로 만든 불상은 물을 지나지 못하고, 쇠로 만든 불상은 용광로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형상은 언젠가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돼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본래 우리 마음을 부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온갖 각행(스스로 깨닫고 다른 이를 깨닫게 하는 보살의 불도 수행을 닦는다고 달마스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고 법문을 듣는 것은 자신이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하지만 여러분 가족에게도 부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 함께 정진 할 수 있도록 안내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본래 마음이 부처님이라고 정의를 내려 줘다면 어렵지 않은데 부처님 용어도 많고, 보살님 명호도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교를 쉽게 이해하고 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거의 부처님이 나 보살님 이름은 모두 방편으로 이름 붙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태어났을 때 이름이 없었지만 불편하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까? 이렇게 불려도 대답하고 저렇게 불려도 대답하지만 대답하는 그 높은 이름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이라는 당해도 모양이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어떤 이름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법, 진여, 진공, 선등 이름을 붙여 놓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모시고 탕화를 모시는 일등은 본래 부처님 모습을 형상화 시켜놓은 것입니다. 불자들이 불상을 상대로 절을 하신다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래 나의 부처님 자리, 참 나의 마음자리를 상대로 절을 하셔야 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 한다고 했을 때 돌아갈 귀자를 씁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나의 본래 부처님자리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법이나 부처님은 표현만 다를 뿐 똑같은 뜻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우주 근본 실상 틀이 아닌 하나의 마음으로 된 그 자리를 부처님 또는 법이라고 합니다. 법에 귀의 한다고 했을 때라도 나의 법에 돌아가서 그 법에 의지하겠다는 뜻입니다. 청정한 스님들께 귀의 한다고

했을 때 금자 그대로 풀이한다면 스님들에게 돌아가 의지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청정한 스님들께 귀의 한다는 말은 하나의 법을 행하고 본래 청정한 수행자로 돌아가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항상 가정에서 정진 하실 때 염불이나 진언을 외을 때 화두를 들 때도 염불하는 그 놀이 우주와 하나라고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우주는 하나의 마음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물질인지 에너지인지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일찍이 일체가 마음으로 돼 있다고 설했습니다. 현대과학에서 에너지를 파동으로 보고 있지만 파동 하는 생명체가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있기는 있지만 볼 수는 없습니다. 본래 갖고 있는 자리를 깨달으면 인격적으로 부처님이라고 부르게 되니 우리가 곧 부처라는 말입니다. 불자들이 절을 하실 때도 하나의 마음을 대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깨닫기 위해서 우주를 그대로 하나로 보고 행할 때 청정한 수행이 됩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동성 스님 작

전통불교천지대왕종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의 대통합 선포



이 땅의 모든 종교신앙인들이여! 진리의 문을 활짝 열고 종교의 벽을 철자. 반만년 민족신앙을 오늘 다시 숭앙하자. 한겨레 한터에서 한 이치로 함께하자.

이 땅의 존귀하신 종교 신앙인 들이여!

국조 단군성조께서 나라를 세우신 이래 수많은 종교가 탄생하여 3생을 오가며 절대적 존재로 때로는 미혹한 모습으로 성현, 도사, 도인, 신주, 만신, 신발 등으로 불리며 8부중생과 더불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력화된 기성종교에 밀려서 미신이란 이름으로 폄하되고 소외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련의 현실 속에서도 역사와 더불어 종교로서 존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한국불교의 한축을 이끌어 온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인 석연 대종사께서 전법에 진력하시며 이 땅의 전통(민속)종교인 및 철학인들의 권익과 보장책을 숙고하던 중, 이 세상에 절대적 유일신은 없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을 접목하여 대도를 구성하고 흥익인간 이화세계사상으로 극락정도를 구현하는 새로운 회상을 열고자 전통불교천지대왕종을 창중하여 선포하오니 우리모두이 결사에 동참하여 교화의 대열에서 함께하고 역랑과 사명을 다해 새로운 세상을 열시다.

전통불교천지대왕종과 함께하실 신앙인 여러분을 열림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종교의 성직자, 신도, 교도, 법사, 전도사, 교회사, 포교사, 철학인, 도사, 도인, 작평가, 신발, 만신님을 차별없이 환영합니다.

충본산 수련도장 설악산 불탑사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화리 산 100-1번지 / 전화 033)671-7751 / 핸드폰 019-248-7751

개창주(開創主) 석연 대종사 창중위원 : 지선, 무생, 무풍, 천풍

■ 입중 및 입회원서 접수 :

본종 총본산 수련도장 불탑사 의 종단에서 지정한 교구청 및 특설사무처

■ 동참 특전 (소정의 서류제출 원비하고 등록한 분에게는)

- 본 종단 의식교전 및 종헌 준법 제공
- 관할관청에 등록하여 재산관리 세무회계를 주선
- 체계화된 교육으로 종교지도자로 양성함
- 사찰, 사암, 포교당등록증, 법위증, 사증 등을 교부
- 종단의 각종 회의에 참석 특전, 중요임원 출마권과 선출권 부여함
- 행정, 교육, 운영 관리에 뜻 있는 분 특별우대함